

01 교회소식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청소년의 신앙생활을 돕는 이재록 목사 저서 발간과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관련 소식.

02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전도에 힘쓰게 된다.

03 기획특집

소중한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

하나님 권능으로 공해병을 치료받은 박흥기 장로를 통해 일가 친척 등 많은 사람이 전도된 은혜로운 소식을 소개한다.

04 간증

"권능을 체험하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재기불능의 삶에서 이젠 행복을 찾아 전도하는 김금현 집사와 프랑스에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자넷 두브레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26호 2016년 2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신앙의 기본기 제대로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책

'이재록 목사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7' 『만나 Time』 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첫 걸음이자 신앙의 기본은 무엇보다 구원의 징표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있다. 바로 학생용 교재 '이재록 목사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 7' 신앙의 기본기 『만나 Time』이다. 오는 2월 26일에 발간되는 이 책은 한창 신앙이 정립되어가는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성령님과 함께', 'Part 2 주일, 바로 세우기', 'Part 3 축복을 부르는 십일조의 비밀', 'Part 4 참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새로운 출발' 총 21과로 되어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행하는 만큼 성장하는 신앙의 기초 세우기,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다져주는 보물 같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에는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1, 2』,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1, 2』가 있다.

축복의 기회,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전 세계 생중계로 2월 29일부터 6주간 진행돼

매일 밤 GCN 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을 통해 국내외 자·협력교회에서 참여하는 우리 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성경 다니엘 10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고 다니엘이 3주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사건이 나온다. 이러한 기도를 두 차례 연속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끌어내리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오는 2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6주간,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인도로 진행된다.

교회적으로 본격적인 제3도약기가 시작된 2016년, 더욱 급속히 펼쳐지는 온 영의 흐름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각자 채워야 할 '1%의 공의를 채우자'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아 영광 돌리기 바란다.

이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2월 29일(월) 오후 9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고 시작하며 4월 10일(일)에는 시상식이 있다.

한편, 특별 다니엘철야는 매일 저녁 8시 40분, 예능위원회 준비찬양으로 시작해 밤 9시부터 11시 40분까지 (단 토요일, 주일은 11시까지, 금요일은 금요일철야예배) 본당과 2, 3성전 등 각 성전에서 진행된다.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를 통해서도 기도회 동참할 수 있다.



▲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은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체험적 신앙 속에서 전국 소망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사진은 2015년 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와 인도, 네덜, 태국 등에서 다니엘철야를 하고 있는 해외 지교회 성도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린도전서 9:16)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친히 목도한 제자들은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날 수제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하루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그리스,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기도한다면 능히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적절한 전도 방법을 알려 주시고, 질병이나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2. 영혼 구원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롬 10:14).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탓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한다는 애절한 심정으로 날마다 쉬 없이 복음을 외쳤지요.

그는 영혼을 구원할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찬미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권속이 복음화되어 유럽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행 16장).

이처럼 복음을 전했는데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경우라면 전도자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지요.

3.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죽은 뒤에 윗음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죽은 뒤에 아랫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라도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주기를 바랐지요. 장차 백보좌 대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부자는 아랫음부에서 이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 이후 지옥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한 고통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나사로를 보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사로처럼 한번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전도한다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나타나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롬 1:28).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모형제, 자녀, 이웃, 친구, 일가친척은 물론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불이 마음에 활활 타올라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했습니다. 전도는 ‘부득불 할 일’ 곧 ‘아니할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부활하신 주님의 지극히 큰 명령입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무 죄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는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부하셨습니다(행 1:8).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구원의 기쁨, 참된 행복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천국은 너무 행복한 곳이지만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희귀병을 치료받고 일가친척이 구원에 이른 축복된 가정을 통해 권능의 사역과 참된 행복을 선물하는 전도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1991년 7월, 당시 국가공무원으로 밤낮없이 일하던 30대 초반의 박흥기 장로가 느닷없이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병명은 공해병. 의학은 물론 각종 민간요법을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다. 7년간 병마와 사투를 벌이느라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던 가장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수시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충동에 젖어들곤 했다.

그러던 1997년 어느 날, 현관에 꽂힌 '만민뉴스'를 보게 되고, 그 뒤 우연히 서점 신앙서적 코너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를 발견한다.



“무언가에 끌리듯 책자 하나가 제 눈에 쏙 들어왔고 그 책 한 권을 밤새 읽었죠. 그분(저자)도 저처럼 7년 병고에 시달렸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다 치료받으셨더라고요. 눈물콧물 흘리며 읽고 나니 저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박흥기 장로)

결국 그는 그해 5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공해병을 깨끗이 치료받는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그는 교회 내 굵직한 사명들을 맡아 충성하고 있다.

박장로의 치료 역사는 일가친척 사이에 이슈가 된다.

“현숙아, 죽을 날만 기다리던 흥기 오빠가 기도받고 살아난 거 너 알지? 오빠가 전도해서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현숙 권사는 언니(박흥기 장로가 전도한 사촌 여동생 이정숙 집사)의 전도로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여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확신하고 남편(구평서 장로, 당시 국세청 근무)을 전도하게 된다.



“세무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내가 제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7년간 세무사 시험에 낙방해 반신반의했지만 그러라고 했죠.” (구평서 장로)

놀랍게도 구평서 장로는 세무사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02년 8월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 그뿐 아니라 오래 전 허리를 다쳐 등뼈가 돌출돼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던 어머니가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뼈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다.

이때, 남편을 여의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께 효심이 남달랐던 구 장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을 결단한다. 탁구, 당구, 바둑, 고스톱 등 좋아하던 오락과 술을 단번에 끊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하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변화된 결과, 개업한 세무회계사무소에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하게 된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믿음만 가지면 그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찌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던지. 꼭 가봐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송이희 집사)

2004년 4월, 당시 B형 간염으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송이희 집사는 직장 신우회에서 구평서 장로의 전도를 받고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송 집사는 그날 예배 시 이재록 목사의 설교 후 이어지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뒤 B형 간염 증세가 모두 사라진다.

이를 통해 교회에 등록한 아내(장민숙 집사)는 무릎 관

절염과 허약 체질을, 딸(영미)은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았으며, 처가 식구들이 전도되었다. 특히 2014년 9월, 대장암이 폐와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신현옥 집사는 송 집사의 전도로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치료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한편, 박흥기 장로의 치료 사실은 처가 식구들에게도 행복한 과문을 일으켰다. 조미형 권사의 친정 부모님과 형제 모두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잘 나가던 형부가 아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형부 대신 돈 벌면서 형부 살리겠다고 고생하던 언니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이제는 온 식구가 형부로 인해 구원을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혜형 권사)

박 장로의 큰 처제 조혜형 권사는 자녀들의 잦은 병치레가 사라져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며, 주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고 있다.

또한 작은 처제 조진형 집사는 자궁 외 임신과 태아의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았으나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정상 분만하였고, 아기의 전신 아토피성 피부염까지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뿐 아니라 처남댁 정영민 집사는 전신 장미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치료받았다.

이처럼 박 장로로 인해 전도받은 성도들은 범사에 축복을 받아가며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할 소망으로 감사가 넘친다. 이런 참된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할렐루야!

<p>FEBRUARY</p> <p>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2.21~2.27</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장 17-20 ■ 천국 21-25 ■ 일곱교회 5-9 ■ 성경적 결혼관 1 ■ 믿음의 분량 19-23 ■ 위로부터 난 지혜 8-9 ■ 마음발을 개간하자 1-3 ■ 요한계시록 강해 26-31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교의 신앙 1 (이수진 목사) ■ 지혜 2 (이미영 목사) ■ 막달라 마리아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37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15 (신동초 목사) ■ 탕자의 비유 3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2 (김수정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9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52 ■ 내 마음의 찬양 27 ■ 창조와 과학 22 ■ English 3 ■ 모두 드려요 44 ■ 뷰티풀 라이프 3 ■ 즐거운 요리 17 ■ 흥겨운 소리 4 ■ 옛날 옛적에 11 ■ 플로리스트 3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0 ■ 회상 [시즌2] 7 <p>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p>
--	---	---	---	--



PET-CT 촬영
 ▲ 기도받기 전
 우측 편도선, 우측 턱밑, 우측 쇄골밑, 좌측 폐문, 위, 간 등 림프암 전이소견 보임.
 ▲ 기도받은 후
 기도받기 전에 보였던 모든 림프암이 사라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김금현 집사 (54세, 광주만민교회)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저희 광주 만민교회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마치기 전, 전 성도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구호를 선창하는 구호 대장의 사명을 맡고 있지요.

어느덧 전도는 저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빈자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저 자리를 꼭 채워드리고 싶습니

다.’ 속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하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서른여섯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9년 만에 실패로 끝나 건강도, 사람도 다 잃고 가진 것이라곤 빚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를 시작했으나 고객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사기를 당해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속다 보니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지요.

그러던 2009년 어느 날, 보험 고객의 전

도로 광주만민교회에 출석하여 메니에르병(심한 현기증과 함께 이명이나 청력상실 증상이 나타남), 강직성 척추염 등을 치료받고 술과 담배도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비호지킨 림프종암 3기(임파선암, 의학 자료 사진까지 치료받는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였지요. 아무 보잘 것 없는 저를 주님께서 어쩌나 사랑해 주시는지 찬양만 해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길에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분은 교회 다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매주 토요일만 되면 만민뉴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제 차로 연로하시거나 아직 믿음이 여린 성도들, 새신자들을 태워 교회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며 ‘하나님, 저분들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지요. 혹여라도 전도의 열정이 시들해지려고 하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단골 미용실과 세탁소, 옷가게 주인에게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등 당회장님 저서를 즐겨 선물하였고, 보험 영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제단을 알리기에 힘썼지요. 전도를 한다고 모두가 열매로 맺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은 전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데 전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지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틈틈이 성구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하기 위해 제가 먼저 말씀 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살 소망이 끊어져 자살을 생각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권능을 체험하고 있어요”

자넷 두브레이 성도 (55세, 프랑스)

2010년 12월, 친구가 ‘만민뉴스’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아 친구가 알려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설교도 듣게 되었지요. 제 영혼을 얼마나 충만케 하는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 많은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는 여러 번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리려 하니 여건이 쉽지 않았습니

다. 시차 때문에 주일 대예배가 새벽 3시 30분, 저녁 예배는 오전 7시에 있는 데다가 제가 일하는 프랑스 공항은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윗분의 허락을 받아 주일을 지킬 수 있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끊고 치료받았으며, 다이어트를 놓고 기도 받은 뒤에는 12kg을 감량하여 55kg의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저를 보며 동료들은 금강해했지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그들도 저처럼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체험하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저서를 소개하고 권능의 역사를 전하며, GCN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를 듣도록 하였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기 시작하였지요. 함께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권능도 체험하였습니다.

류청화 자매는 과다출혈증상을, 필 형제는 피부병을, 릴루 성도는 하지정맥류와 지루성 피부염을, 질베트 성도는 관절골절 돌출증을 치료받았지요. 하나둘씩 늘어난 성도는 어느덧 10명이 넘어 저희는 한 곳에 모

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성전으로 꾸몄습니다. 앞으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 전도한 성도들과 함께한 자넷 두브레이 성도(사진 뒷줄 우측에서 세 번째).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841-0091, 010-7195-1099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4)748-577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복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202-8480, 010-8331-1136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